

## <한국근대미술-전통과 문명의 갈림길에서>

박영택(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 2. 계몽과 항일, 개화와 전통

#### 개화기: 근대적 자의식의 여명기

1876 년 근대 일본의 타력에 의한 '개항'을 통하여 서구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편입된 조선왕조는, 1880 년대에 개화정책을 시도. 기존의 왕조적 체제와 질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서구의 열강들과 같은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고자 시도. 1894 년 대한제국, 과우개혁 실시, 갑오개혁에 따라 과거제, 신분제철폐, 인민 또는 국민이란 새로운 근대적 인간유형

**서화계** 동도서기론 자창, 이는 바뀔 수 없는 '도'와 수시로 변하는 '기'는 서로 분별된다는 '도기상분'의 성리학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제창. 동양의 정신사상 및 도덕적 규범과 질서인 '동도'는 고수·유지하되, 서양의 이용후생적 생산기술과 문물제도인 '서기'는 채용하는, 동서 문명의 분립적 조합을 통해 양자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고자 함.

1894 년 도화서 폐지 이후, 개화기의 서화계는 조선 말기를 통해 창작과 수집 및 감평 활동 등에서 중추세력으로 활약한 비양반 출신의 '여항문인'서화가 인맥에 의해 주도. 1880 년대를 전후하여 오원양식이 주류. 상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치풍조와 호사취미의 확대 등과 더불어 성행. 오원이 제자인 안중식과 조석진의 남종문인화풍. 채용신의 조선 후·말기 초상화의 뛰어난 전통에, 근대 일본과 중국에서 유행시킨 초상사진술을 활용한 극사실적인 화법.

**사군자** 매난국주의 한 벌 그림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7 세기 조선 중기 무렵으로, 군자적 사대부상 확립이란 시대적 과제와 결부되어 대두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탈속적 문인화목이 개화기의 '동도'보존 사조에 수반되어 계승(외세에 맞선 자아수호의 표현, 고전을 계승하는 형식주의 양식, 보수민족주의미학), 동시에 통속화되고, 상품화되는 경향. 대원군 이하응(석파란), 김응원과 김규진(해강죽), 민영익(운미란)의 명성, 1922 년 창설된 조선미전에 '서부'를 설치, 사군자를 공식 창작물로 인정.

**도화시간** 갑오개혁에 의해 1895 년부터 문명개화와 계몽의 장치, 부강하고 독립된 나라의 국민육성을 목적으로 신교육 제도가 시행, '소학교령'으로 공포된 교과목에 '습자'와 '도화'가 분리 편재됨으로써 '서화'의 분립을 촉진하고 나아가 서화시대를 해체하는 데 기여, '미술'을 체험,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수용의 장. "도화는 안眼과 수手를 연습하여 통상通常의 형체를 간취하고 正正하게 畫畫하는 能能을 養養하고 겸하여 意匠意匠을 練練하고 形體의 美美를 辨知辨知케 함을 요지로 함." "그림은 아무것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

눈으로 일상적인 실물적 형태를 파악하여 손으로 이를 정확하게 그리는 능력을 기르는 도화교육의 목표. 사물의 객관적 형태가 중심이 되어, 이를 인간의 주체적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려내는 근대적인 사생적 리얼리즘은 시각 중심 또는 시각 독점의 세계 파악과 표현, 이 근대성 구축의 패러다임을

제도화하고 내면화하는 학습. 통감부 정치가 시행되던 1906 년의 '보통 교육령' 공포로 과목의 목표가 "도화는 통상의 형체를 간취하여 진상을 화하는 능력을 득케하고 겸하여 미감을 양성함을 요지로 한다"로 바뀜. 도화를 심미적인 '파인 아트'로서의 '미술'이란 개념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반영. 개화기를 통해 미술은 공공장소나 시설물에 진열되어 공중의 관람대상인 전시물이 되고 사회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시각적 소비물이 되고 미술이 전시품이 됨, 되었다. 유리진열창을 사이에 두고 사물을 보게 함으로써, 전시물을 시각적 대상으로 집중시켜 구경을 통해 계몽한다는 근대적인 취미 육성과 시각 우위의 지각 질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

**박람회** 1907 년 '경성박람회', 물건의 실건을 통해 관중의 안목과 식견을 넓히는 시각적 계몽의 공공장소, 아름답고 기이한 기술로 제조된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념과 가치를 유발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로서 부각, 문명개화의 시각적 장치이며 공예진흥의 무대이면서 미술품을 포함한 제조물의 생산과 소비의 시선이 만나는 새 유통공간이 박람회는, 진열품 분류체계를 통해 근대적 미술의 범주화와 불특정 다수를 관람객으로 공중화했으며, 다른 물산품과 함께 '직매'의 대상이 되는 등, '미술'의 개념과 인식의 형성 또는 보급에 중요한 구실.

**박물관** '박물관'이란 개념은 사물의 생화육의 이치를 선형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인식한 '만물'이란 전통사회의 개념과 달리 사물을 경험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는 근대적인 인식체계를 반영. 근대적 박물관은 과거의 찬란한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대외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민족적 위대성과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내적으로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질화된 역사의식과 함께 국민의 일체감과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결속·통합하는 시각적 교육장으로 기능. 이왕가박물관(1909-1938)은 조선인의 근대 문명인으로서의 취미화를 도모하면서 조선왕조의 정치적 상징을 해체하려는 일본의 전략 아래 태동, 자국 미술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국주의 일본이 수집과 전시를 주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호자라는 식민지 본국의 이미지 유포와 함께, 식민주의 사관을 확산하고 내면화시키는 시설이 되었다.

**서화관** 근대적 유통제도로 개량된 서화관은 1906 년에 등장, 1908 년에는 '한성서화관', 조석진을 전속화사로 고용하여 그림을 공급.

**미술용어** '미술'이 문명개화의 담론과 결부되어 본격적으로 사회적 어휘로 연표 되기 시작한 것은 1900 년대. 1884 년 헌성순보에 처음 등장. 당시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국한해서 사용, 도화(도학과 회화, 도안)와 병행해서 표기. '미술'이 기계적인 의미에서 공업과 공예 발달의 필수 요소로 인식. 미술은 개화기를 통해 문명개화 및 신지식의 용어로 도입되었다. '미술'을 근대적인 미적 가치의 표현으로 본 것은 1906 년 보통교육령의 공포로 서구적 수준의 근대 국민으로서의 품성 도야와 창조력 개발에 치중하는 '미육'적인 미술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된 동향과 관련. '회화'·'조각'·'공예'·'건축' 등이, 조형예술로서의 '미술'의 하위 구조를 이루는 분류 용어로 인식되거나 재배치된 것도 개화기를 통해서였다. 1910 년대에 회화와 조각 같은 파인아트인 미술은 인생의 생계에 필요품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정에 아름답고 유쾌한 감각을 일으켜서 행복하게 하고 풍속을 고상하게 하여, 문명을 진보시킨다는 견해(이는 일본의 메이지 후기의 주류 미술론의 영향)

**사진** 1826 년 프랑스의 니엡스가 촬영에 성공하면서 발명된 사진은, 기계로 피사체의 형상을 시각적 이미지 그대로 옮겨내는 '빛의 연필'에 의해 재현된 표상매체로서 1840~50 년대를 통해 다게르 등에 의하여 실용화·상업화되면서 확산, 사진은 르네상스 이래 자신의 눈을 통해 망막에 비친 시각세계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해 광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고정된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내고자 한 재현의 사실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진화된 것이다.

사진이란 용어는 원래 唐時代 이후 초상화의 별칭이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신을 겸비하여 실물과 같게 그려진 형사적 전신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 '포토그래퍼'를 잘못대로 광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진'이라 부른 것은 꼭 닮게 비쳐내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진경'으로 의역하여 사용했던 에도시대의 용례를 따랐기 때문, 최초의 사진술 도입은 어용화사 출신으로 신문물 수용에 앞장선 김용원. 1883 년 '촬영국'을 설립, 개화관료 출신 서화가인 황철과 지운영 역시 자신의 집에 사진관 개설. 김규진 1907 년 '교육서화관'을 열고 서·화와 함께 사진술을 가르치고 '천연당'사진관을 개업. (초상사진의 기술개선과 대중화에 기여) 화가들 또한 초상화의 정확한 재현을 위해 모사의 원화로 사진을 사용(채용신, 김은호), 대상물을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한 사진을 모사의 원화, 즉 객관적 형상의 범본으로 삼게 된 것은 근대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리얼리티의 구현과 확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이 활용, 혼담상대, 1900 년경부터 초상사진 수용 증가.

**인쇄** 개화기의 인쇄문화는 1883 년 박문국의 설치와 초빙된 일본인 기술자에 의해 전개되기 시작. 교과서인 「신정심상소학」에 실린 삽화는 기계화된 인쇄술로 대량 생산된 시각적 정보를 균일하게 보급, 개화와 계몽의 이미지로 널리 작용. 교과서삽화의 삽화자체가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에 기초한 근대적인 시각제도를 체험, 단일시점으로 수렴된 선원근법적 화상과 그림자 묘사 등장

과학적 물체관과 근대적 시각법의 내면화에 기여. 신문에서 사진제판사용, 사물과 사건을 복제된 인화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추체험하게 된 것은 시각능력의 확장과 전파에 따른 인식변화, 1908 년 1 월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월간잡지「소년」과, 1914 년 10 월 처음 간행된 본격적인 월간종합지「청춘」에 삽화와 사진, 광고 그림 등의 인쇄미술이 부분적으로 실리기 시작. 이도영(삽화가)

개화기를 통해 기계화된 인쇄물로 생산되기 시작한 서적과 잡지류 가운데 양장본은 표지에 그림이나 서체, 도안으로 장식, 이러한 표지화는 대중미술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 1906 년에서 1910 년대 초기에 출판된 신소설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지화 전개되기 시작, (19 세기 이전은 필사본, 19 세기 중반에서 1910 년까지는 방각본, 이후 활자본인 이른바 딱지본 표지화) 과장된 일점투시법과 트리밍 한 듯한 근경확대술 등이 근대화된 도시경관의 위용과 함께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제공.

만화는 1909 년 대한민보에 처음 등장(이도영), 시시만평적 성격. 이미지의 해학적 변형과 생략, 과장에 의한 왜곡과 말풍선.

개화기의 인쇄미술은 신기술이 가져 온 시각 및 이미지 세계를 확장, 개편시키면서 계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보는 방식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시각체제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매체로도 기능. 복제에 의해 균질화 된 '근대'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사고를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시각문화로서 중요한 의의.

**서양화수용** 1890 년 입국한 사베지 랜더, 고종 초상화 제작한 휴버트 보스(1899), 레미옹이 공예미술학교 설립문제로 방한, 일본인 서양화가들이 청일전쟁시 종군화가로 방문. 일본 근대 서양화의 시조는 다카하시 유이치(영국인 워그먼에게 유화 배움, 1866), 구로다 세이키(1884 프랑스로 건너가 라파엘 콜랭에게 배움, 귀국 후 1896 년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부임) 후지타 쓰구하루(1913 프랑스로 건너가 수학)